

심의결정에 참여한 윤리위원

위원장

고 현 철 (변호사 · 전 대법관)

윤리위원

안 병 준 (독자불만처리위원 ·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)

장 명 국 (내일신문 사장)

김 기 응 (한국경제 사장)

김 형 기 (조선일보 논설위원)

허 엽 (동아일보 편집부국장)

윤 영 미 (한겨레 수도권팀장)

박 록 삼 (서울신문 정책뉴스부 기자)

안 양 옥 (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)

김 광 현 (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 회장)

이 연 배 (서울YWCA 회장)